

투명하지 않은 시간들

-지오 최의 카이로스 시간 여행

지오 최는 오늘도 여행 중이다. 장시간 작업실에 들어앉아 눈과 마음에 담긴 것을 곱씹어 보고, 화면에 펼쳐내는 내면의 여행이다. 그런데 이는 선형적으로 흐르는 크로노스(Chronos)의 시간이 아닌, 기억과 생각, 감정이 겹겹이 포개진 '불투명한 시간'속에서 펼쳐진다. 지오 최의 작업은 본질적으로 기억이 층층이 쌓인 카이로스(Kairos)의 시간에서도 바래지 않고 선명히 떠오르는 대상을 건져내어 시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장을 채집하는 실제 여행도 잦은 편이라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작년 미국 네바다와 유타 10여 곳의 국립공원 레지던시를 비롯해 캐나다, 제주도, 거제도, 최근 중국 산시성(山西省)에 이르는 장소적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렇다고 지오 최가 의도적으로 풍경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의 눈과 손은 오히려 일상의 평범한 것도 색다르게 보이게 하지 않는가. 그리하여 여행의 대상에는 수년간 마당을 지키고 있는 새하얀 목수국을 비롯해 이름 모를 풀과 곤충, 어머니가 해주셨던 계란후라이의 추억과 지금도 종종 보내주시는 꽃사진, 마트에 진열된 싱그러운 샤인머스킷도 포함된다. 또 매화철마다 찾아가는 하동이나 울산바위가 보이는 고성 등 정기적인 방문 장소도 그러하다.

중요한 것은 익숙한 풍경이나 색다른 경관 모두 장소애를 불러일으켜 지오 최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는 점이다. 토포필리아(Topophilia)의 이동 중 정지(pause in movement)'가 일어나는 순간이다. 이때 크로노스의 시간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머무르며 깊어진다. 여기에 시각 외에 청각과 후각의 감촉까지 스며들고, 작은 사건들까지 켜켜이 포개지면 대상에는 고유한 인상이 자리 잡는다. 평범해 보일지라도 내면에 깊이 각인되는 장소로 탈

바꿈하는 것이다. 이는 작가가 굳이 브라이스 캐년 Bryce Canyon을 반복적으로 찾아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지에 그린 <동트는 브라이스 캐년>과 캔버스에 그린 <한밤의 환상곡>은 한 장소를 유사한 구도로 그리고 있지만 분위기와 정서에서는 확연한 차이가 난다. 물론 재료와 시간대부터가 다르기도 하지만, 거듭된 방문과 관찰을 통해 시간과 경험의 층위가 쌓이며 대상의 의미가 변모하는 과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동트는 브라이스 캐년>이 현지에서 마주한 찬란하고 장엄한 아침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면, <한밤의 환상곡>은 협곡의 밤 풍경에서 받은 인상과 감동을 작업실에서 음미하고 재해석해 풀어낸 것이다. 마치 군중처럼 형상화된 후두(hoodoo)는 불꽃이 피어오르는 모습으로 표현되어, 오랜 시간을 견뎌 온 바위에 응축된 생명력을 강렬하게 발산한다. 이 불꽃은 하늘로 리드미컬하게 솟아오르며 은하수와 어우러져, 환상곡(fantasy)을 연주하듯 한밤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전자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잠시 숨 고르며 포착해 낸 장면이라면, 후자는 좀 더 숙성된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길어 올리고, 덧붙이며, 재조합한 사의적 풍경이라 하겠다.

사실 지오 최는 스케치 단계에서는 관념적인 해석을 경계하기 위해 날선 시선으로 대상을 치열하게 관찰한다. 그러나 작업실에서는 그 대상이 담긴 스케치북을 펼치며 또 다른 여행에 돌입한다. 바위의 시선에서 자연을 보았던 물아일체의 순간을 떠올리며 자연의 강인한 생명력과 신비까지 비춰내는 것이다.

조슈아(Joshua) 트리 작업 역시 그간의 삶의 궤적을 되짚어 보는 고요한 성찰의 시간에서 피어났다. 두 팔을 벌려 기도하는 여호수아(예수)의 모습을 닮은 조슈아 트리는 불에 탔음에도 척박한 사막에서 여전히 곳곳한 모습으로 작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에 그저 죽은 나무에 불과할지라도 작품에서 만큼은 자존감 넘치는 주인공으로 재탄생했다. 또 매년 봄이면 반가워 맞아주는 하동 매화도 이번에는 성숙한 여인의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늘 변화하는 예술가의 심상을 온전히 반영한 결과다.

이처럼 지오 최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여행하지만 그 여정의 정점은 카이로스의 순간에서 맞이한다. 사실(寫實)과 사의(寫意) 사이에 존재하는 수많은 결들이, 또 현장에서의 찰나 같은 순간과 작업실에서의 느릿한 시간의 층위가 그 간극을 불투명하게 만들지만, 지오 최의 작업은 바로 그 미묘한 틈을 가로지르며 태어나는 것이다. 두터운 필터를 통과한 대상은 마침내 투명한 빛을 품고 화면 위에 재탄생했다.

이제 우리도 그 빛을 따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향해 발을 디딜 차례이다.

김남윤 (아미미술관 학예실장)